

다양한 공모전 준비 통해 실력 쌓아

윤미경 /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

“높은 경쟁률과 뛰어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공모전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큰 상으로 보답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꼭 필요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제6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학생부문에 서울산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 윤미경 학생이 수상했다.

처음 막연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동경하여 미대로 진학하게 된 윤미경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한 결과, 패키지 디자인 분야에 흥미를 찾게 됐다.

윤미경 학생은 “패키지 디자인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업성적이나 공모전을 남다른 열심으로 준비해 왔다”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적성을 찾은 케이스라 더욱 열성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어떤 상품이 개발되면 포장디자인은 필수라고 강조하는 윤미경 학생은 패키지디자인이야말로 똑같은 제품이더라도 디자인에 따라 판매

매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패키지디자인산업은 소비자들을 포장디자인으로 말없이 설득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라고 당당히 밝힌 윤미경 학생.

그녀는 학교를 졸업한 후 영향력있는 디자이너가 되어 경험을 쌓은 후 대학원 진학을 통해 필요한 분야

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뒤 패키지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윤미경 학생은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에게 “전문적인 분야의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기에는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교수업에 충실하되 개인적인 경험인 현장실습이나 공모전을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패키지디자인분야에 남다른 열정으로 차곡차곡 자신의 실력을 쌓고 있는 그녀. 남다른 열정을 가진 패키지디자이너 윤미경을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

